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나프로임신센터를 통해 임신한 부부와 태아를 축복하고 있다.

보다 많은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직할병원 '나프로임신센터' 개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최근 산하 5개 직할병원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에 '나프로임신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나프로임신법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우뚝 섰다.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자연의(Natural), 가임력이 있는(Procreative),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이는 여성의 배란주기와 호르몬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 · 분석하고 그 안에서 **자연 임신과 여성 건강 증진을 돕는 임신법**으로, **윤리적이고 생명에 가치를 둔 난임 치료법**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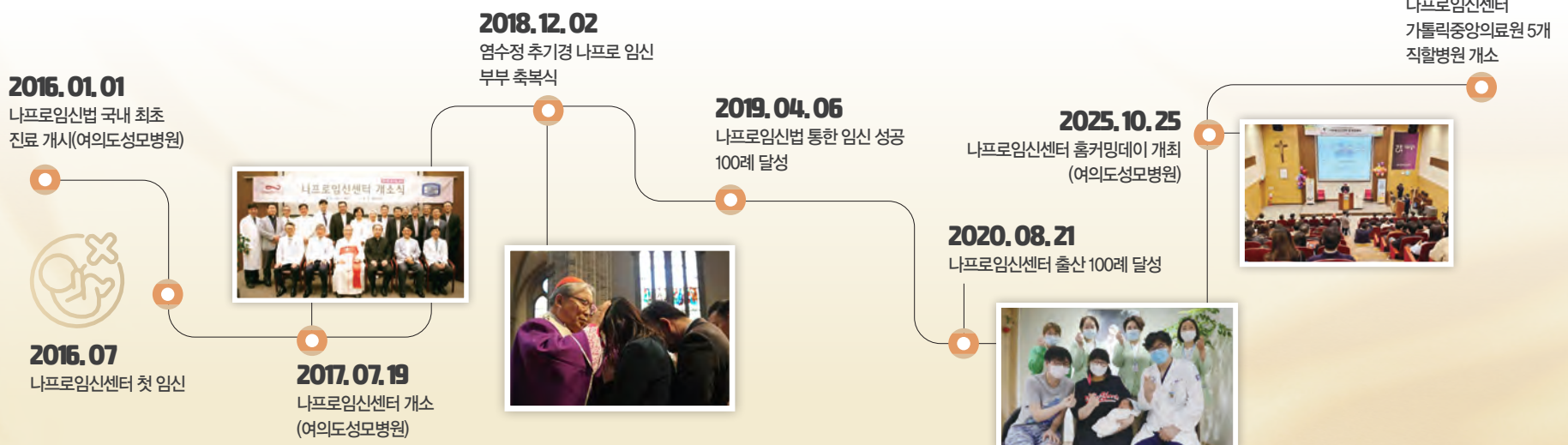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여의도성모

병원에 나프로임신법을 도입한 후 이듬해 공식 센터를 개소, 한국 나프로임신법의 역사를 써왔다. 이후 지난 11월에 이르기까지 5개 직할병원 전체에 나프로임신센터를 확대 개소했는데, 이는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거나 윤리적 고민을 가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치료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 난임으로 어려워하던 부부들이 가톨릭중앙의료원 나프로임신센터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것은 모두 282례(2025. 11. 15 현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의 세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나프로임신법을 통한 성공

사례는 인공적인 시술 외 방법으로 임신을 원하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센터 개소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나프로임신법 도입에 앞서 의료진을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성 바오로 6세 연구소'에 파견해 나프로임신법 관련 전문 자격을 획득하도록 했고, 확대 개소를 앞둔 지난 10월에도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직접 나프로임신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망막’으로 난치성 실명 정복 나선다

은평성모병원 · POSTECH · 한국외대 연구팀, 3D 프린팅으로 망막정맥폐쇄 ‘체외’에서 재현



원재연 교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안과 원재연 교수(공동교신저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동우 특임교수(공동교신저자), 한국외대 김정주 교수(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망막-온-어-칩 (retina-on-a-chip) 제작과 이를 기반으로 망막정맥폐쇄 질환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망막정맥폐쇄’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망

막 혈관이 막혀 시력이 손상되는 주요 실명질환이지만, 기존 치료법은 증상 완화에 그치고 재발률이 높아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주로 동물실험과 2D 세포 배양에 의존해 사람의 생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복잡한 망막의 3차원 구조나 혈관 협착 현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실제 망막 조직에서 세포만 제거하고 남은 세포외기질로 ‘하이브리드 바이오잉크’를 제작, 망막 고유 생화학적 신호를 반영한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다중 노즐과 삼중 동축 프린팅 기술을 결합해 망막의 혈관 · 세포층 · 혈액망막장벽을 동시에 구현하고, 일

부 혈관을 인위적으로 좁혀 질환의 병리적 진행을 재현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혈관 협착에서 허혈 · 염증 · 혈관 누출 · 망막 기능 저하에 이르는 질환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존 항염증제나 항혈관신생제를 투여했을 때도 실제 환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신약 평가와 환자 맞춤형 치료 플랫폼으로써 활용 가능성도 입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소재 및 나노공학 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Composites and Hybrid Materials》(IF=21.8)에 게재됐다.



위암의 새로운 열쇠, ‘세포의 우체국’ 골지체에서 찾다

골지체 응축이 위암 악성화 촉진하는 핵심 원리 규명



김지윤 · 김진영 교수 · CHANDANI SHRESTHA 박사과정생(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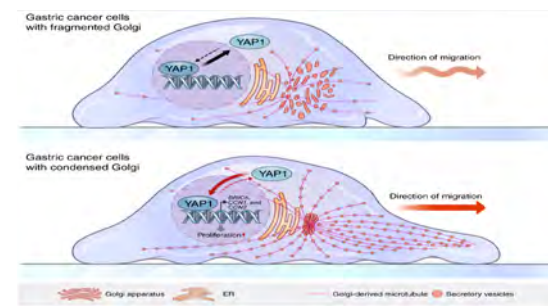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지윤 교수 연구팀(김지윤 교수-교신저자, 김진영 연구교수-공동 제1저자, Chandani Shrestha 박사과정생-공동 제1저자)은 단백질을 분류하고 포장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골지체’의 구조적 변화가 위암의 악성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위암 세포의 악성도가 골지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위암 세포에서는 정상 세포에서와 다르게, 골지체가 응축된 형태로 뭉쳐있는 현상이 관찰됐으며, 이 응축된 골지체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기전임을 밝혔다. 골지체가 응축되면 세포 내 도로망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이 더 활발히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암을 촉진하는 단백질 ‘YAP1’이 세포핵으로 이동해, 암세포의 분열과 이동 능력을 높이며 악성화가 촉진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과정을 ‘골지체 응축 → 미세소관 형성 촉진 → YAP1 핵 이동 증가 → 위암 악성화’라는 새로운 경로로 정리했다.

또한, 약물로 골지체의 구조를 조절했을 때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갖춘 실질적 치료 전략임을 입증했다. 이는 암세포의 공간 구조를 제어하면 암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골지체 구조를 안전하고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후보물질 발굴을 진행 중이다. 또



▲위암 세포 내 골지체의 응축된 구조 변형이 암 촉진 인자인 YAP1을 활성화시켜 암의 악성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식도

한, 위암 외 다양한 암종에서 ‘골지체-YAP1 축’이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해, 이 치료 전략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암학회(AACR)의 대표 학술지인 《Cancer Research》(IF=16.6) 2025년판에 게재되었다.



양자점 나노복합체로 10분 만에 초고속·초정밀 진단가능성 제시

나노입자 기술로 기존보다 50만 배 민감, 진단 시간은 1/100 이하 진단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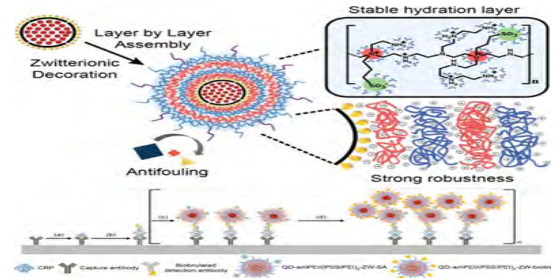
박준혁 · 김성지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 박준혁 교수(공동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성지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이 단 10분 만에 감염이나 염증을 초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초고감도 · 초고속 항원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양자점 복합체(Quantum Dot

Composite Complex, QDCC)’라는 새로운 형태의 나노소재를 만든 것이다. ‘양자점’은 빛을 받으면 특정 색의 빛을 내는 반도체 나노입자로, 특정색의 광발광을 통해 미세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수십 개의 양자점을 하나의 튼튼한 나노복합체 안에 안정적으로 넣어, 기존보다 강하고 오래 빛나는 입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연구팀은 나노입자의 표면 화학 구조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생체분자를 표면에 도입하고 이들과의 상호 결합력을 극대화시켰다.

연구팀은 새 양자점 나노복합체를 ‘C-반응 단백질(CRP)’ 검출에 활용했다. CRP는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증가하는 단백질로, 감염 여부나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의 대표적 진단법인 효소결합면역검출법이 4~24시간이 걸리는 반면, 연구팀의 방법은 1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50만 배 이상 민감하게 미량의 항원도 탐지할 수 있다.



▲안정한 양자점 나노복합체 합성법을 통한 초고속 초정밀 타겟 항원 검출 인 모식도

이번 연구는 의과학과 나노소재 기술의 융합 연구로, 의생명 지식과 나노공학적 설계를 접목해 ‘진단의 속도와 민감도’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 나노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ACS Nano》(IF=15.8) 9월호에 게재되었다.



서울성모·고대 공동 연구팀, 비침습적 두경부암 진단 플랫폼 개발

첨단 재료공학과 인공지능 결합, '타액 기반' 비침습적 두경부암 조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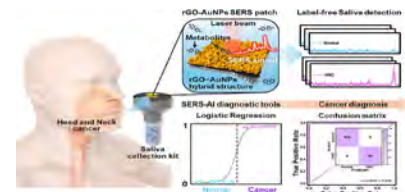
박준욱 · 정호상 교수 · 서효정 연구원(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준욱 교수와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정호상 교수 공동 연구팀(제1저자 한국재료연구원 바이오·헬스재료연구본부 서효정 연구원)이 타액 검사만으로 두경부암을 98% 정확도로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높지만, 3기 이후에는 40% 이하로 낮아진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미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내시경 검사 등으로 종양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먼저 방향족 분자를 안정적으로 흡착하는 물질인 '그래핀'을 활용해 타액 검사용 진단 기판을 제작했다. 추가적으로 신호 증폭을 위해 표면에 산화 형태의 금 나노구조를 성장시켜 초고감도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기판은 시간 의존적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2시간 동안 안정적인 신호를 유지했으며, 물로 세척 후에도 평균 67% 수준의 신호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타액 속 70개 대사물질을 분석해, 이 중 39개 대사물질로 참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거쳤다. 그 결과, 두경부암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비침습적 두경부암 진단 플랫폼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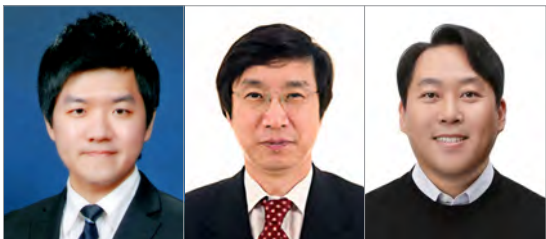
나타나는 15개의 바이오마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경부암 환자 25명과 건강한 대조군 25명의 타액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나노코랄 그래핀 센서와 결합한 인공지능 모델은 특이도 100%, 민감도 96%, 정확도 98%라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확인된 바이오마커들은 두경부암의 병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다학제 저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IF=14.1)에 게재됐다.



호르몬 통한 교감신경 촉진으로 에너지 소비 늘린다

비만 치료 호르몬 GDF15의 새로운 작용 원리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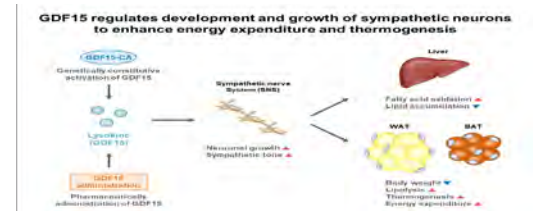


김지윤 · 이명식 교수, 김진영 연구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지윤 교수(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의생명연구원 이명식 석좌교수(교신저자), 김진영 연구교수(제1저자)가 비만 치료의 핵심 단서로 주목받고 있는 GDF15(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15) 호르몬이 교감신경의 성장과 발달 자체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량을 높인다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GDF15는 그간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연구팀은 GDF15가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교감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교감신경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신경망으로, 지방세포에 신호를 보내 열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연구팀은 GDF15가 지방조직 내 교감신경의 밀도를 높여 에너지 소비를 늘린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GDF15가 과도하게 발현된 쥐는 지방조직 내 교감신경이 많아지고 체온 유지 능력이 향상됐다. 반대로, GDF15 유전자가 결핍된 쥐는 교감신경 밀도가 낮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 나아가 연구팀은 GDF15의 수용체(GFRAL)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 교감신경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GDF15가 뇌를 거치지



▲GDF15가 교감신경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조절해 에너지 소비와 열 발생을 향상시키는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모식도

않고도 신경 성장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GDF15의 기능을 '신경 활성화'에서 확장해, '신경 성장 및 발달 조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며,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IF=12.9) 2025년판에 게재됐다.



희귀 뇌종양 신경아교육종 맞춤 치료의 길 열다

환자-유래 신경아교육종 오가노이드 구축 및 치료 적용 기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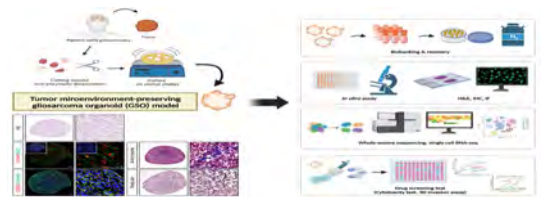
정연준 · 박준성 · 안스데반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조정밀의학사업단 정연준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와 가톨릭대학교 암진화연구센터 박준성 교수,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안스데반 교수 공동 연구팀이 '환자-유래 신경아교육종 오가노이드(Gliosarcoma Organoid)'를 구축했다.

신경아교육종(gliosarcoma)은 악성 신경교종(glioma)의 일종으로, 예후가 극도로 나빠며 현재 신경아교육종만을 위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교수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했다. 환자의 종양 조직을 활용해 환자 암 조직의 특성을 재현하는 '미니 장기'를 만든 것이다. 이 환자 맞춤형 오가노이드(GSO)는 환자의 종양 상태를 충실히 반영했고, 연구팀은 환자 조직 및 오가노이드에서 NTRK2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는 세포 성장과 신경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이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의 효과를 오가노이드에서 직접 검증함으로써 환자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간 신경아교육종 연구는 실험 모델이 없어 연구 진행이 더뎠다. 치료제 연구에서도 일반 교묘세포종 모델을 사용할



▲종양미세환경 모사 환자-유래 GSO 구축 및 정밀 의학 활용 모식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실제 환자 치료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신경아교육종 오가노이드 모델(GSO)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희귀하고 치명적 뇌종양인 신경아교육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IF=7.5)에 게재됐다.



환자는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



한명의 의사까지 지역의 의료 지도를 바꾸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척추 분야 명의’로 부르며 진정성 있는 진료와 고난도의 수술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외래·수술·연구·교육·대의 자문 등 쉼 없이 움직이지만,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남는다. 그의 진료실 앞에는 늘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수술실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는다.

그는 의사이자 교육자, 연구자이자 의료 영성을 실천하는 의료인이라는 다층적 정체성을 통해 환자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환자를 대할 때 늘 제 가족을 떠올립니다.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같은 마음으로 치료하려 합니다”



“대전에서 척추 치료의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진석 교수는 2000년,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에 부임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척추 질환과 뇌종양 분야에 전념하며, 대전·충청권 척추 전문치료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 1년간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메디칼센터 정형외과에서 세계적인 척추변형 수술 권위자인 Dr. Lawrence G. Lenke 교수 아래에서 연수를 진행하며 척추변형 치료 분야의 국제 표준 기술과 최신 지견을 습득했고, 국내로 돌아와 한국인 체형에 맞는 수술법으로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경험을 “대전 지

역 척추변형 환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반드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라고 회고하며, “척추변형 수술은 난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수술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척추변형연구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장을 역임하며 학술과 임상 양면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두 개의 권위 있는 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2025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 202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교수는 수상의 의미를 “환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를 기본으로 삼았던 태도의 결과”라고 답했다.



대전성모병원에서의 소명 | 없던 진료 분야를 만들어 내는 개척 정신

2000년 당시 대전성모병원에는 전문 척추 담당 교수가 없었다. 지역 중증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가야 했고, 의료급여 환자·중증 장애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컸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 대전·충청 지역에서 고난도 척추변형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수많은 척추변형 환자를 수술하며 정상적인 보행과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했다. 척추측만증·후만증 등 구조적 기형 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대표적이며, 신경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신경 손상 위험을 낮추는 수술법을 적극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 그는 국내 상위권의 척추변형 수술 케이스 보유자로 평가되고 있다.



바쁜 일정 끝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

현재 그는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이며 외래 진료와 수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가 집중하는 연구 분야는 ▲척추변형 수술 ▲골다공증성 골절 ▲뇌수두증 치료 ▲뇌종양 수술이며,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케이스를 축적하고 있다.

“척추변형 수술은 단순히 뼈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환자가 다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삶을 재구성하는 수술입니다.” 다만 그는 연구만큼 마음의 어려움도 숨기지 않는다. “때론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의사에게 가장 무거운 순간이죠”

그는 의술보다 태도를 먼저 말했다. “저에게 치료를 맡긴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 수술이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가?’, ‘신경외과 수술은 결과가 삶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감 있게 준비합니다.’”



영성구현상 수상 | 기술 너머의 의료, 마음을 전하는 의사

2025년 그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을 수상했다. 이는 인간 존엄·사랑·연대를 실천한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24년 의정 사태로 인해 진료 공백이 크게 발생했지만, 저희는 가능한 모든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료했습니다. 이는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 환우의 날 행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제로 모노드라마 연극 공연을 했던 것이 평가에 좋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대생 시절 연극반 생활 중에 주로 배우로 활동했었고, 이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건네고자 했다.



직업을 넘어 사명으로 이어진 길

그가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이유는 “어려운 의료 과정을 통해 환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고 싶었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대전성모병원에 척추 담당 교수가 한 명도 없던 시기를 직접 경험하며 ‘지역 책임의식’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그는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할까, 그 기준이 모든 치료 판단의 중심입니다.”라고 말한다. 척추 수술은 대부분 긴 재활을 필요로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기존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향한 마지막 한 문장

“아픈 뒤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는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걷기, 근육 유지 운동을 강조하며, 예방의학적 관점으로 척추 건강을 안내했다.

“저를 찾아와 치료를 맡긴 모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체능 ‘만능’ 캐릭터가 환자분들께 봉사하는 법

부천성모병원 중환자간호팀 김목균 사원



▲중환자간호팀 김목균 사원과 전문진료지원팀 김민지 선임이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미사에서 기타 반주 봉사하는 모습

2005년 약제팀 지원직으로 입사해 현재 내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김목균 사원. 소사동성당에서 맺은 인연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부천성모병원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와 환자 케어를 돕고 있다. 음악, 그림, 운동 등 다방면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그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환자와 동료들을 위한 봉사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타 실력이 뛰어나고, 병원에서도 연주 봉사를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한테 처음 기타를 배운 뒤로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 꼭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주말 종교 외출 때 성당에서 기타 봉사를 했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동생과 함께 거리 공연이나 라이브 카페 연주도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직원 미사 같이 병원에 필요한 행사 때 기타 연주를 하거나, 원내에서 요청해 주시면 찾아가 기타를 연주해 환자 분들과 동료 교직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생과는 기타 연주곡을 기록 형식으로 유튜브에 남기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고, 친척께서 만화가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 꾸준히 그림을 그리

며 좋은 취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만화 화실 문하생 자리를 찾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화 작업을 도우며 생활했고, 네이버 웹툰에 기타에 관련된 웹툰(스리핑거)을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웹툰이 아니어도 그림을 참 열심히 그렸는데, 너무 열정을 쏟다 보니 현재는 그림 쪽으로는 따로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목균 사원의 그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병원에 있는 사회인야구 동호회(부천성모병원 챌린저스 야구단)에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즐긴 지는 15년 정도이고, 지금은 그때그때 팀에서 비는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축구 동호회도 하고 있지만, 야구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끝날 때까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급변하는 순간이 많아서 짜릿하고 재미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 연주를 통해 환자분들께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취미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병원에 처음 입사한 후 근무하던 병동에서 주말에 격주로 비공식 음악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동 팀장님이셨던 수녀님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열자고 하셔서 주말에 기타 연주를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작게 한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침대까지 끌고 나와서 들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만큼 병원 생활이 힘들고 무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나와서 들어주시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니, 저도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코올의존치료센터 환자분들께 기타 강습을 하며 기타를 가르쳐드리고, 연말 송년회 때 같이 공연을 했던 기억도 정말 좋은 추억입니다.

이러한 취미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도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사 반주를 하면서 동료 교직원분들이나 수녀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근무 중 마주칠 때 밝게 인사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 신념은 무엇인가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환자실에 근무하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정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살면서 느끼는 고민과 고통은 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말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도전이라는 건 멋지고 무언가를 해본다는 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행복이고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하루도 사실은 큰 선물과 같은 날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지고 계신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은?

동생과 한 번씩 함께 기타 연주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해 더 멋진 소리를 담은 풍부한 영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주로 좋아하는 곡들을 기타로 연주해 올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남길 때 그 곡들을 더 잘 표현하고, 더 뜻깊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성모병원 야구 동호회 회원들이 더 재밌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위 동료분들이나 환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은?

처음 중환자실에 왔을 때를 자주 생각합니다. 살면서 처음 보았던 그 업무공간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시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환자분들을 돌봐주는 모습에 많은 걸 느끼고 존경스러운 맘이 생겼습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탬 테니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께는 부천성모병원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힘내신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 본

자연의 **Natural**, 가임력이 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1년 발표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관한 권고「가정공동체」에서 “자연 한 난임 치료법인 ‘나프로임신법’을 국내에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이란?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단순히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가임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자연스러운 임신을 돕는 동시에, ‘생명 본연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연주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 난임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치료해 신체의 능력을 회복하게 이끌어 자연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써, 인위적 임신법과 달리 가정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여성 신체의 건강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나프로기록(NaProTRACKING)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적 접근을 통해 난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가임력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생명 의식 함양, 부부 간 사랑을 증진시켜 난임을 극복시키는 데 의미를 두기에, 가정과 생명에 가치를 둔 진정한 난임 치료법으로 여겨진다.

나프로임신법, 이런 부부에게 추천합니다!

난임 또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



인공적인 시술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부



나프로임신법의 또 다른 주인공 : 전문의사, 프렉티셔너, 에듀케이터, 인스트럭터

나프로임신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의료진이 필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위해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위치한 미국 성 바오로 6세 연구소에 의료진을 파견해, 나프로임신법에 필수 인력인 전문의사(Medical Consultant), 프렉티셔너(Practitioner), 인스트럭터(Instructor)를 획득하도록 지원해 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나프로임신법은 통상의 고정관념처럼 ‘산부인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비뇨의학과, 전문 간호 인력, 심리상담사와 협업해 다학제적으로 임신에 접근하며 내·외과적 치료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 중 필요한 것을 활용해 난임 부부에게 적용하는 독창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현재에는 전문 인력 교육이 미국에 있는 ‘성 바오로 6세 연구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나프로임신법 필수 인력

전문의사(Medical Consultant)

프렉티셔너(Practitioner)



나프로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난임 원인을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부가 나프로기록을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기록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분석, 진료로 연계하며, 이어지고 난임 부부의 생명의식 함양, 부사랑 증진, 건강관리 지식 습득해 여성 건강이 향상되도록 교육 등 나프로임신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나프로임신법의 창시자 토마스 힐거스 박사와 교육생들 (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연의 능력 그대로, 나프로

는 Procreative, 기술 Technology

는 혼인의 소중한 선물"이라며 출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에 가정과 생명에 가치를 둔 진정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에 부합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1968년 발표한 화칙 「인간 생명」에는 “출산 능력은 인간 생명의 탄생을 본질적으로 지향하며, 하느님께서 그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이 출산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고 **인체의 자연적인 주기(자연주기법)**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친다.

나프로임신법은 이러한 방향성 아래 오랜 기간 교회 내에서 연구되어 온 임신법의 결실이다. 1985년 미국의 성 바오로 6세 연구소 토마스 힐거스 박사(산부인과)에 의해 시작되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공적인 시술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존중함으로써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부부의 자유롭고 의식적인 협력’**을 지향한다.



부부

고위험임신(고령임신 등)에
해당하는 여성



임신과 관련된 부인과 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원하는 여성



가정으로 찾아와 준 생명에게 축복을

지난 10월 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나프로임신센터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2016년 나프로임신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프로임신센터를 통해 출산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신 280여 가족 중 45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염수정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

순택 대주교와 함께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각 병원 나프로임신센터장, 의료진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나프로임신법은 교회의 가르침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가장 바람직한 난임 치료법”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울고 웃으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들을 훌륭히 겪은 만큼,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에듀케이터(Educator)



프렉티셔너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교육자로 나프로임신법의 체계적 교육과 인력 양성을 담당하며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인스트럭터(Instructor)



나프로기록을 교육하는 기본 교육자로서 나프로임신법을 처음 시작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입문교육과 기본교육을 수행한다.

수 있
는 정
에 그
치
양, 부
들을 통
육하는
역인 역



Health&Issue

일교차 큰 계절, 천식과 COPD 환자 주의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가 최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유럽호흡기학회에서 '흡연이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흡연, 급격한 기온 변화와 대기오염, 실내외 온도 차가 기도 염증과 천식, COPD의 증상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를 전달받아 게재한다.

가을·겨울철, 천식과 COPD 환자를 위한 호흡기 관리 가이드

● 계절 변화가 기도에 미치는 영향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며, 기관지 수축과 점막 손상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변화는 천식 환자에게 기침과 쌉쌉거림을, COPD 환자에게는 호흡곤란과 가래 증가를 유발한다.

● 흡연, 계절성 악화를 부추기는 '숨은 적'

흡연은 폐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기도 염증을 지속시켜 계절성 자극에 대한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흡연자 COPD 환자는 감기에 걸렸을 때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훨씬 높다.

● 이렇게 관리하세요

▷ 외출 시 따뜻한 복장과 마스크 착용

찬 공기가 폐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스카프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덮는다.

▷ 금연 및 간접흡연 차단

실내 흡연은 가족의 호흡기 건강까지 해친다.

가능한 한 완전 금연 환경을 만든다.

▷ 실내 습도 유지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를 40~60%로 유지하면 기도 자극을 줄일 수 있다.

▷ 독감·폐렴 예방접종

감염은 천식·COPD 악화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는다.

▷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검사를 통해 폐 기능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

진료 분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진료 시간 [오전] 월, 화, 금 [오후] 목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 세포 치료 사업의 역사와 전망' 주제 2025 의료역사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연구소는 지난 11월 20일 '윤리적인 연구, 선도하는 의료: 가톨릭 세포 치료 사업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2025 CMC 의료역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윤리에 기반한 가톨릭 의료 연구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는 개회사에서 "교회의 세포 치료 연구는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대안 연구로써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이뤄 왔다."며 "20년간의 노력은 생명윤리에 충실한 과학 연구가 맺은 결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은 이동의 전 의료원장이 '생명의 물줄기를 바로 잡다'를 주제로 맡아, 생명윤리 실천과 세포 치료 연구의 신앙적 뿌리를 되돌아보며,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지켜 온 여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원주영 교수(인문사회학과)가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한 한국 사회의 윤리관 변화 분석했으며, 오일환 교수(가톨릭기능성세포치료센터장)와 박승기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장)가 각각 세포 치료 연구의 역사와 성과, 향후 재생의학 연구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박승만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연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첨단재생의료의 윤리적 방향과 사회적 책임을 논의했다.

CMC 의료역사 심포지엄은 가톨릭 의료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시대의 사명을 성찰해 온 학술의 장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윤리와 과학이 조화되는 가톨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시대 속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한국가톨릭병원협회, 2025년 정기세미나 및 정기이사회 성료

한국가톨릭의료협회·한국가톨릭병원협회가 10월 24일부터 25일 까지 대구에서 정기세미나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윤리와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티모테오 1서 6,11)."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민창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국천



주교주교회의 보건사목담당 서상범 티토 주교의 축사가 더해졌다. 이후 세미나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총장 전영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째 날엔 이진숙 작가가 '미술사로 보는 감정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공문선 교수가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료 현장에서의 관계 회복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둘째 날엔 국내 유일의 물리학자 신부로 알려진 김도현 바오로 신부가 '시대의 삶과 신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인들이 전문성과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신앙의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하길"

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 비룡소·어스본 코리아(대표 박상희)가 지난 11월 12일, 도서 6천5백 부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부했다.

기부된 도서는 비룡소·어스본 코리아에서 출간하는 어린이 도서로, 환아들이 병실 밖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사회성을 기르고,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이 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된 도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메디컬엔젤스(CMA)를 통해 8개 부속병원으로 배부되어, 환아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비룡소·어스본 코리아 박상희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출판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

교원창업기업 올쏘케어, AI근골격계 진단기기 출시

2D 카메라로 근력·관절운동범위 측정...
세계 최초 기술 적용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중호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 ㈜올쏘케어가 근골격계 질환 진단 보조 기기 '아나파PS'를 출시, 디지털 의료기기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아나파PS는 인공지능(AI) 동작 분석과 음성 전자의무기록(EMR) 기능을 활용해 환자의 관절 상태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환자가 태블릿PC의 안내에 따라 동작을 취하면 AI가 어깨 관절 가동 각도와 근력을 측정한다. 특히 2차원(2D) 카메라로 근력을 측정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다. 퍼즐에이아이의 고정밀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됐다. 환자가 진료 전 통증 점수와 증상을 음성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관절 운동범위와 근력 상태를 점수화해 EMR로 전송한다.

아나파PS 외에도 환자용 재활운동 앱 '아나파ME', 의료진용 처방 소프트웨어 '아나파웹'을 개발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의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데이터 1만 1,000여 건을 AI로 분석해 환자별 맞춤형 재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6개월간 최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올해는 탐색임상시험에서 아나파ME의 안정성과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내년 확정임상에 돌입할 예정이고, 2027년 디지털 치료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나



파PS의 병원 공급을 본격화하고 동작 분석 인정 비급여 항목 등재를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인공신장실, 대한신장학회 우수 인공신장실 3연속 인증 획득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인공신장실이 최근 대한신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통과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장투석 진료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

했다.

대한신장학회의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은 환자 안전, 감염 관리, 투석 질 관리, 인력 전문성 등 다방면의 엄격한 현장 심사과 평가를 거쳐 부여된다.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 인증 통과율이 약 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증은 의정부성모병원의 우수한 투석 관리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정부성모병원은 2019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병원이 안정적인 투석 관리체계와 환자 중심의 진료를 일화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박창민 인공신장센터장은 "이번 3연속 인증은 모든 의료진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투석 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 환경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획득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8년 5월까지로, 의정부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최신 의료 기술과 철저한 감염 예방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30주년 기념식 개최

삶의 마지막 여정에 동행한
30년의 발자취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1월 7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소 3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와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호스피스 사명을 이어온 이들의 헌신을 감사하며,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톨릭 생명 존중의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요 보직자, 한국 가톨릭호스피스협회 유정희 회장 등의 주요 내빈과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중 영성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합창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는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경인지역 최초로 설립된 호스피스 기관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실천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사명을 이어왔다.

센터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은 환자의 고통을 세심히 돌보고 있고, 지난 30년간 12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요일별로 기도·마사지·침상준비 등을 돕고 있다. 또한, 1만 7천여 건이 넘는 후원자의 관심과 지원은 호스피스 사명을 실천하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각종 요법치료와 가족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사랑 속에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남겨진 사별 가족 대상 모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인 '전인적 치료'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 2천여 명의 환자가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돌봄을 받으며 평화로운 마지막 여정을 맞이했으며, 부천성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간호대학

간호대학 제25회 성의간호학술대회 개최

간호대학은 최근 간호 학문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원 산하 병원 간호사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간호대학 제25회 성의간호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CMC 산하 병원의 간호사, 간호대학 대학원생과 교수 약 160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발표, 공유하고, 수상도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간호학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해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차세대 AI 기반 음성인식 의무기록 솔루션 도입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인공 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주)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AI 의무기록 솔루션 'CMC GenNote(젠노트)'의 시범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운동은 양사 간에 협약한 '전(全)주기 생성형 의무기록 개발'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일부 임상과에서 순차 도입된 이후 본 사업 과정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남유에프엔씨, 서울성모병원에 소아 자선기금 1억 원 추가 기부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주)남유에프엔씨 남유숙 대표로부터 소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남대표가 2023년부터 이어온 나눔 활동의 연장선으로, 치료비가 부담되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 후원이다. 남유숙 대표

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여의도성모병원

황호식 교수, 교육부 중견연구 과제 선정... '자동초점 안경 개발'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연구형 중견연구 과제에 '액체렌즈와 LIDAR 센서를 이용한 자동 초점 안경 개발'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정상 수정체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초점을 조절하는 안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황 교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곧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하늘의 별들이 된 이들을 기리는 위령미사 열어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뇌사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위령미사를 봉헌해 왔으며, 특히 올해 미사에는 장기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수혜자가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직접 낭독해, 생명 나눔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의 날' 기념 청라호수공원 걷기대회 진행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최근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에서 열린 걷기대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돌봄의 발걸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인천성모병원



재활치료팀의 준비운동으로 시작해 청라호수공원 일대 약 2.7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돌봄의 발걸음'이라는 주제 아래 존엄과 사랑의 돌봄 문화를 함께 체험했다.

연평도 찾아 도서지역 의료봉사 실시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에는 신장내과 신석준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윤정섭 교수 등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행정 인력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의료진은 연평면 주민체육센터에 진료 부스를 마련하고 내과 및 심혈관계 질환 진료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영양수액 투여 등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했다.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홍보 캠페인 실시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중한 우리의 추억'을 주제로, 환자, 보호자,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운영 20주년을 맞아 내원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호응을 얻었다. 강전용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메디컬 풋 스캐너로 레드닷 어워드 수상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재형 교수가 개발한 '메디컬 풋 스캐너 및 이미지 판독 시스템'이 세계적 디자인상인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 : Design Concept 2025)'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해당 기술은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심미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루 갖춘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7대 회장 선출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가 한국 보건행정학회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교수는 2026년 회기 동안 학회를 이끌며, 국내 보건행정·보건정책 분야의 학술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보건의료 제도 발전과 공공정책 개선을 위한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국내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대표 학회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임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가 최근 제69차 대한정형외과 추계 국제 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교수는 전공의·전임의·임상의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추진, 정형외과 술기 교육을 확대,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회 간 연계를 강화해 정형외과 치료와 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수 술기 교육' 공로 감사장 수상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조항주 교수가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과술기연구회로부터 외과 술기 교육 발전 공로 감사장을 받았다. 조항주 교수는 외과 전공의들을 위한 혁신적인 술기 교육 모델 개발 및 운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외과 술기 교육의 질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은평성모병원 약제부 이정선 부장이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정선 부장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요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병원 약제 업무에 30년 이상 헌신하며, 마약류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 취임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신재혁 교수가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 회장에 취임해 2026년 5월까지 학회를 이끌 예정이다. 신교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북미 척추학회 등 국내외 주요 학회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한척추기초연구학회는 대한척추외과학회의 8개 세부 전문 연구학회 중 하나로, 척추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해 왔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펜싱협회 최신원 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자선기금 1억 원 기부
소외된 환우들에게 희망 전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
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은 지난 11월
10일, 최신원 회장의 자선기금 기부금 전
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편성협회 최신원 회장,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종 후원회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번 자선기금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불우환우들을 돕기 위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신원 회장은 “병원을 내원하면서 의료진과 환우들의 노고를 가까이에서 느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SKC,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한 최신원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대표로 활동하며, 성경최종건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민창기 의원원장은 “최신원 회장님의 나눔은 가톨릭종양의료원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의료 정신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부의 뜻이 소외된 환우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원물산 박상조 회장,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첨단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나눔의 뜻 펼쳐

고원물산(주) 박상조 회장(스테파노)이 지난 10월 30일,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상조 회장,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이성중 후원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조 회장은 “서울성모병원의 의료 인프라가 더욱 발전해 많은 환자들에게 하

민창기 의원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료 발전에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답했으며,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또한 “서울성모병원은 선진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학 연구를 통해 일류병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발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석유화학 전문회사인 고원물산(주)을 창립한 기업인으로,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추경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CMC에는 가톨릭의대/간호대 학생 장학금 후원, 옴니버스 파크 건립 등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기부 는 병원의 인프라 확충과 의료 발전에 힘을 보탠 나눔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나눔의 등불을 밝히고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위령성월 맞아 기부자(가족)를 위한 위령미사 봉헌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은 지난 11월 6일, 위령성월을 맞아 고인이 된 기부자와 가족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2층 성당에서 진행된 이번 미사에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및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병원 기부자와 유가족 및 교직원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병원경영실장 배원일 신부의 집전으로 진행되었다.

기부자(가족)를 위한 위령미사는 생전에 CMC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남겨진 이들

이 고마움과 기억을 함께 나누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미사 중간에 유가족들이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초를 봉헌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함께한 유가족들은 “고인을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이 따
뜻하고 감동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매년 고인이 된 후원자와 가족을 위한 추모미사를 이어오며,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기부정신과 사랑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10월 신규 약정자 명단

[illegible]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기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가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시신 기증자 위한 위령미사 봉헌

숭고한 사랑의 뜻 기리며,
기증자와 가족에게 감사와 위로 전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11월 7일,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내 참사랑묘역에서 의학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기증자들과 유가족들의 숭고한 참사랑을 기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위령성월(11월)에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들의 깊고 숭고한 참사랑 실천을 기억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된 참사랑묘역에는 의학 교육에 몸을 기증한 분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있으며 현재 총 5,682위의 기증자가 안치되어 있다. 이번에는 기존 5,760위를 모실 수 있었던 묘역을 1,848위가 추가된 총 7,608위 규모로 확장해 더 많은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축복식도 거행되었다.

올해 위령미사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장 겸 국제술기교육센터장인 김인범 교수의 헌화로 시작해,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목실장 김우진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미사에는 해부학교실 이우영 주임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학생, 유가족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사 중 학생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발표한 의예과 2학년 유주영 학생의 뜻깊은 인사도 전해졌다.



성의교정 교목실장 김우진 신부는 “기증자들의 숭고한 사랑이 모여 참사랑묘역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이 되었고, 의학 발전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기증자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간호 대학

간호대 김알영 석사학생연구원, GMWHO 2025에서 Position Paper상 수상 WHO 국제 보건정책 무대에서 간호 리더 역량 보여준 성취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알영 석사학생연구원(일반대학원 간호학과 4학기, 지도교수 이선미)이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Global Model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GMWHO 2025) Digital Health & AI 위원회에서 Position Paper Award를 받았다.

Position Paper Award는 WHO 사무총장과 WFUNA 사무총장 공동 명의로 GMWHO에서 위원회당 한 명만 수상하기에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김알영 석사학생연구원의 수상

은 연구 기반 분석력과 국제 협상 역량을 입증해낸 동시에, 국제 보건정책 무대에서 한국 차세대 간호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GMWHO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유엔협회연맹 WFUNA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세계 차세대 보건 정책 리더들이 WHO 총회의 실제 절차로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고난도 정책·외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Digital Health & AI, 비전염성 질환(NCDs) 예방과 관리, 사회적 연결성 증진 등 세 가지 분야로 정책위원회를 분류해 각각 65명의 인원들이 참여했다.

김알영 석사학생연구원은 Nature Biotechnology 게재 논문 공저자, 맨체스터대, 듀크대, 베이징대 등 세계 우수 연

구 정책 인재들과 함께 Digital Health & AI 위원회에 배속되었으며 WHO·OECD·World Bank의 디지털 헬스 전략과 카타르 국가 정책을 교차분석하는 Position Paper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WHO의 AI 윤리·거버넌스 원칙을 바탕으로 데이터 품질과 거버넌스의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점이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

김알영 석사학생연구원은 “간호와 1차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데이터 구조가 진정한 환자 중심 시의 출발점”이라며 발표 의미를 설명한 후 “향후에도 디지털 헬스와 데이터 기반 임상·정책 연구를 심화해 국제보건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여를 이끄는 간호 연구자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 성모

백혈병 환자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손다혜 간호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손다혜 간호사는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평소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에 참여해 온 손다혜 간호사는 대학 시절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고, 최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증을 결심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에게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약 45만 명의 기증 희망자 중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10% 수준이다.

손다혜 간호사는 “등록 당시에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실제 기증을 통해 한 생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주변에서도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빈 센트

동티모르에서 의료봉사 펼쳐... 486명 진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동티모르 딜리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사랑의 원정대(경기도 의료봉사단)’라는 이름으로 꾸려진 봉사단에는 문동규 교수(순환기내과)를 단장으로 오승배 교수(정형외과), 임연희·박지현·황윤재 간호사(간호부), 배현철 팀장(디지털혁신팀), 박희숙 루치오사 수녀(사회사업팀) 등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단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심장초음파 검사 98명, 심전도 검사 125명, 혈당검사 45명을 포함해 총 486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사고로 인해 손, 팔, 다리,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100여 명에게 증상에 맞는 보조기를 제공하고 착용을 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단장 문동규 교수는 “현지 의료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열악해 안타까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해준 단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의료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객서비스 품질 10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상급종합병원 부문 1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25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상급종합병원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국내 의료서비스 품질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생명 존중'의 가톨릭 영성을 기반으로 투약·치료 과정 표준화, 모바일 약물 정보 제공, 모바일 문진 시스템 도입 등 환자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혁신을 지속해 왔다.

혈액질환 분야에서는 CAR-T와 맞춤형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료 기반을 구축했고, 국내 최초로 자가면역질환에 CAR-T 치료를 적용하는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 비뇨의학과는 단일공 로봇수술 1천례를 돌파하며 특화된 임상 경쟁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류마티스 진료, 고위험 산모 협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등 주요 진료 분야에서도 꾸준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기반으로 AI 의료 생태계 구축과 '닥터앤서 3.0' 맞춤형 예후관리 기술 개발 등 미래 의료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전반은 환자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고 세대를 이어가는 혁신을 지향하는 병원 운영 철학으로 이어지며, 서울성모병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가 '직접' 개발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체험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다초점인공수정체 체험 클리닉

국내 최초! 수술 전,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미리' 경험하세요

인공수정체는 크게 2개로 나뉘어요

- ☑ 단초점인공수정체: 한 곳에만 초점이 맞습니다.
- ☑ 다초점인공수정체: 여러 거리에 초점이 맞아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모두 잘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미리 체험해 보세요!

- ☑ 영상 체험: 특수 촬영 장비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서, 각 렌즈로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전문의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실제 착용 체험: 체험 장비에 실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장착하여 착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 곳의 물체, 가까운 곳의 글씨, 어두운 곳에서의 빛 번짐 등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내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각막이식

전층각막이식
부분층각막이식
DALK, DSEK, DMEK

폭쓰씨각막이식 안구건조증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명의! KBS에 출연 온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



외로운 노인 건강 빼앗는 '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KBS 뉴스 2025. 11. 17)

"대화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동영상이나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되게 자극적이고 그리고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날로그의 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실제 의미나 재미를 두고 있는 생활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터의 경고 호흡기 질환 호흡기내과 김진우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5. 11. 17)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계절. 감기로 오인해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추운 날씨에 치명적인 질환들과 감기의 구분법부터 백신 접종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쉽게 따라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법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실천의 생명윤리! 건강한 임신을 돕는 동반자

나프로임신센터 개소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시험관시술 및 인공수정 등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여성 스스로가 본인의 생리주기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난임의 원인을 진단하고 교정하여 가임력을 최적화시켜 **건강한 자연 임신**을 돕는 방법입니다.

적용대상

- 자연 임신을 원하는 부부
- 난임
- 가임력 보존
- 건강한 월경주기 조절

나프로임신센터 구성

- **나프로전문의사(Medical Consultant)** : 나프로차트를 기반으로 진료, 검사 및 치료
- **나프로교육자(Practitioner)** : 생리적 지표에 대한 관찰기록 교육
- **비뇨의학과 협진** : 남성난임 진료
- **심리적 영적 돌봄**

나프로 프로세스

01

나프로 차트 작성

호르몬 변화를 반영하는 생리적 지표를 관찰, 기록합니다.

02

기록된 차트에 기반한 진단

각 여성의 고유한 나프로 차트는 진단 및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03

개인별 내/외과적 맞춤 치료

나프로 치료 계획은 개인의 증상과 생리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진료시간

- **김민정 교수** : [오전] 목, [오후] 월
- **이경은 교수** : [오전] 금
- **최진봉 교수** : [오후] 화, 금



나프로임신센터 의료진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길을 밝혀 가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 새로운 성탄 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탄 구유에는 정경식 대건 안드레아 작가의 크리스마스 구유화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성모 마리아와 요셉, 한자, 사제, 수도자, 의료진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작나무와 낙엽 등 자연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기다림 속에서 움트는 생명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구유가 은평성모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 그리고 따뜻한 성탄의 의미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G층 성탄 구유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는 회복

내원객용

교직원용

(B2, G, 1, 2, 3층에서)
빨간 모금함을 찾아주세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따뜻한 겨울 온기 나눔 모금**

■ 모금기간 : 2025.12.01(월) ~ 12.31(수)

■ 참여방법

■ 내원객

- 모금함 기부(B2층, G층, 1층, 2층, 3층)
- 사회사업팀 방문기부(B2층)

■ 교직원

- 그룹웨어 참여(성모자선회 기부 메뉴 활용)
- 사원증 태그(B2층 교직원 식당, 4층 수술실 교직원 식당)

*모금된 금액은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